

Sabic, EG 생산능력 350만톤으로!

57만5000톤에 이어 62만5000톤 신설계획 ... Nan Ya 및 BASF도 가세

Saudi Basic Industries(Sabic)는 100% 자회사 Jubail United Petrochemical(JUP)이 2005년 말까지 사우디 Al Jubail에 2번째 EG(Ethylene Glycol) 62만5000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Sabic의 7번째 EG 플랜트로 Sabic의 EG 생산능력이 총 350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이며 이는 2006년 세계 수요전망치의 20%에 달한다.

또 JUP는 현재 또 다른 EG 57만5000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2004년 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.

Sabic은 Süd-Chemie와의 50대50 합작기업인 Scientific Design의 신기술을 채용하고 자회사 GAS 및 Petrokemya로부터 에틸렌(Ethylene) 및 산소를 공급받을 예정으로 건설기업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다.

JUP는 Al Jubail에 에틸렌 10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2004년 하반기 가동될 예정으로 JUP의 첫 번째 EG 플랜트 및 현재 JUP 및 Petrokemya가 합작으로 건설하고 있는 2개의 PE 플랜트에 원료로 공급될 전망이다이며 2개 PE 플랜트는 2004년 1월 가동했다.

JUP는 또한 2005년 완공을 목표로 Linear α -Olefin 15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나 Sabic의 전 다운스트림 플랜트에 공급하고 부족한 공급량은 Petrokemya가 담당하게 된다.

한편, JUP는 EG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담당기업 후보 가운데 하나로 Toyo Engineering을 선정했는데, Toyo는 JUP의 첫 번째 EG 플랜트 건설을 담당할 바 있으며 일정 및 가격 협상을 통해 최종결정할 방침이다.

Nan Ya 또한 2003년 4/4분기부터 EG 35만톤 플랜트를 가동했으며 BASF는 2005년 중국에서 32만톤 플랜트를, 2006년 이란에서 40만톤 플랜트의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.

Dow Chemical 및 Kuwait Petroleum의 100% 자회사인 Petrochemical Industries는 쿠웨이트 Shuaiba에 에탄(Ethane) 85만톤 크래커와 EO/EG 60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. Olefin II 프로젝트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25>